

[특집] 한글의 과학성을 문화로 바꾼 분들

원고로 남은 최초의 우리말 사전, 《말모이》

최경봉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몇 장의 원고로만 남은 비운의 사전 《말모이》. 그러나 《말모이》 편찬 사업은 갑오개혁 이후 진행된 초기 어문 정리 사업을 마무리하는 일이었다. 문법, 철자법, 표준어의 정리는 근대 어문 정리 사업의 목표였고 사전의 출판은 이러한 어문 정리 사업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말모이》 편찬 사업의 의미 또한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 강제 병합된 후 시작한 《말모이》 편찬은 일제 강점의 질곡에 갇혀 실패로 돌아갔고, 이를 만회하려는 민족적 열망은 일제 강점기에 민족 어문 운동을 즐기치게 추진하게 한 동력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말모이 편찬 사업은 일제 강점기 민족 어문 운동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1. 《말모이》 편찬, 누가, 왜, 어떻게 시작하였나?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의 설립은 《말모이》 편찬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일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최남선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민족 계몽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족의 앞날을 도모해

야 한다는 일념으로 조선광문회를 설립하였다. 조선광문회가 추진한 민족 계몽 운동은 그 설립 취지에 따른 것이었는데, 조선광문회 설립자들이 내세운 것은 수사(修史), 이언(理言), 입학(立學)이었다. 그들은 수사(修史)의 취지 아래 우리 고전을 수집하여 이를 간행·보급하고자 했고, 이언(理言)의 취지 아래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여 우리말 사전과 문법서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말모이》는 이언의 취지 아래 벌인 우리말 사전 편찬 사업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조선광문회의 사전 편찬 사업은 주시경과 김두봉이 주도했다. 그런데 주시경과 김두봉이 처음부터 《말모이》 편찬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한자 사전인 《신자전(新字典)》(1915)을 편찬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였고, 곧이어 권덕규, 이규영이 합류하면서 우리말 사전인 《말모이》를 편찬하게 되었다. 우리말 사전이 전무했던 당시로서는 한자 사전의 우리말 훈석(訓釋)과 우리말 사전의 뜻풀이 작업이 연동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조선광문회에서는 《신자전》과 《말모이》 편찬 사업을 같이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을 보면 조선광문회의 설립이 《말모이》 편찬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말 사전의 편찬은 근대 개혁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대적 요구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말모이》 편찬을 주도했던 주시경은 1897년 9월 25일 자 《독립신문》에 발표한 글에서 우리말 사전(이 글에서는 ‘옥편’)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 바 있다.

불가불 국문으로 옥편을 만들어야 할지라. 옥편을 만들자면 각색 말의 글자들을 다 모으고 글자들마다 음을 분명하게 표하여야 할 터인데 그 높고 낮은 음의 글자에 표를 각기 하자면 음이 높은 글자는 점

하나를 치고 음이 낮은 글자에는 점을 치지 말고 점이 없는 것으로 표를 삼아 옥편을 꾸밀 것 같으면 누구든지 글을 짓거나 책을 보다가 무슨 말의 음이 분명치 못한 곳이 있는 때에는 옥편만 펴고 보면 환하게 알지라.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었음에도 우리말 사전 편찬 사업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사전을 편찬할 만한 토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토대로서 절실했던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철자법과 표준어였다. 당시에는 어떤 말을 표준으로 하고 이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주시경이 ‘국문동식회’를 결성하면서 철자법 연구에 나선 것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개화 지식인들은 활동 분야와 상관없이 어문 정리에 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어문 정리를 위한 연구에 직접 뛰어들기도 하였다. 근대적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문의 정리와 통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식인들의 관심과 참여는 어문 정리를 위한 국가 연구 기관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성의학교 교장 지석영이 제안한 국문쓰기안인 ‘신정국문(新訂國文)’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1907년 7월 학부(지금의 교육부에 해당)에 국문연구소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국문연구소의 연구는 1909년 12월 새로운 철자법을 이루는 것으로 귀결되었으나 국내외적 혼란에 휩쓸려 최종 연구안인 ‘의정안(議定案)’의 철자법 안을 공식화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국문연구소의 연구 위원들이 한결같이 사전의 필요성을 강조할 만큼 국문연구소의 연구가 궁극적으로는 사전의 편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분명했다. 사회 여론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 《대한매일신보》(1908.3.1.)의 논

설¹⁾은 국문 자체의 연구에 매달려 사전 편찬이라는 목표를 망각한 듯한 국문연구소의 행보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전 편찬에 대한 민간의 요구가 사전의 체제와 내용을 제안할 만큼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근래 듣기로 학부에서 국문연구소를 설치하고 국문을 연구한다고 하니 어떤 특이한 사상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거니와 나의 우둔한 생각으로는 그 연원과 내역을 연구하는 데 세월만 허비하는 것이 필요치 아니하니, 다만 그 풍속의 언어와 그 시대의 말소리를 널리 수집해 온전한 경성(서울)의 토속어로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 등 부류를 구별하여 국어 자전 일부를 편성하여 전국 인민으로 하여금 통일된 국어와 국문을 쓰게 하라.

당시의 시대적 요구를 감안할 때, 국문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주시경이 이후 우리말 사전 편찬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일 병합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주시경은 국문연구소 활동의 연장 선상에서 사전 편찬을 기획하였고, 조선광문회에 참여하여 사전 편찬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1) 국문 연구에 대한 관건.

2. 《말모이》가 원고로만 남은 이유는?

《말모이》 편찬 사업은 1911년 시작되었고 1914년 무렵 원고 집필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주목할 점은 《말모이》의 편찬 시기가 조선총독부 《조선어사전》(1920)의 편찬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을 강점한 후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지배 정책의 일환으로 옛 관습과 제도를 조사하는 구관·제도조사사업(舊慣制度調査事業)을 벌였는데, 이와 관련한 사업 중 하나가 《조선어사전》 편찬이었다. 그런데 《조선어사전》 편찬 사업은 조선어를 단순히 수집·조사하는 것을 넘어서 조선어 교육을 위한 표준 사전을 만드는 일이기도 했다.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철자법(1912년 공포한 보통학교 교과서 편찬용 조선어철자법) 논의는 《조선어사전》 편찬과 더불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피지배 민족의 지식인이 모여 만드는 《말모이》의 편찬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말모이》 편찬을 주도한 주시경은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철자법이 아닌 국문연구소에서 논의되었던 자신의 형태주의 철자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피지배 민족어인 조선어의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선어를 조선어로 뜻풀이한 사전의 수요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조선총독부가 《조선어사전》 편찬을 시작할 당시, 《조선어사전》의 체제는 조선어 표제어에 대해 조선어 풀이와 일본어 풀이를 함께 하는 것이었다. 사전의 체제를 이렇게 결정했던 것은 식민지적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조선어사전》은 조선인의 일본어 교육과 일본인의 조선어 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조선인을 위한 조선어 교육’이라는 목표는 배제되었거나 부차적인 것이었다. 결국 최종 편

집 단계에서 조선어 풀이는 삭제되었고 일본어 풀이만 남게 되었다. 일본어가 국어인 현실에서 《조선어사전》은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언어를 배우는 데 쓰는 도구일 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과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 보면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말모이》의 출판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말모이》 편찬자들은 사전 편찬을 멈추지 않았다. 1914년, 《말모이》 편찬을 주도하던 주시경이 세상을 떠난 극단의 상황에서도 김두봉, 이규영, 권덕규 등은 《말모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수정했다. 김두봉이 지은 《조선말본》(1916) 뒷면에 실린 신문관(조선광문회가 운영하던 출판사)의 조선어 사전 광고는 그 당시 조선어 사전 편찬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음을 말해 준다.

조선의 지금 말(時語) 5만의 표준을 정하고 의의(意義)를 설명한 것이니 조선이 말을 가진 이후에 처음 있는 대저(大著)라. 우리의 정신적 혈액이 이로부터 일단의 생기를 얻을지니라.

그러나 결국 ‘사전’²⁾은 출판되지 못했다. 주시경을 이어 사전 편찬을 주도하던 김두봉은 1919년 상해로 망명하고, 그를 돕던 이규영마저 1920년 세상을 떠났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 편찬 사업이 지속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말모이》 편찬자들이 흩어진 1920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어 표제어와 일본어 뜻풀이로 구성된 《조선어사전》을 출간하였고, 《말모이》와 《사전》은 원고 뭉치로 떠돌게 되었다.

《말모이》 원고가 다시 조명받게 된 것은 1920년대 일본의 통치 방

2) 광고를 보면 조선어 사전의 이름이 ‘사전’으로 되어 있다.

식 전환으로 조선어문화가 되살아나면서부터다. 1920년대 간헐적으로 시도되던 조선어 사전 편찬 사업은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어사전편찬회의 결성 시점은 민족 어문 운동의 전성기였다. 조선어사전편찬회의 주축인 조선어학회는 사전 편찬의 기초 작업으로 ‘한글마춤법통일안’(1933)과 ‘표준어사정안’(1936)의 완성을 위해 매진하였으며, 문맹 퇴치를 위한 한글 보급 운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하였다.

3. 《말모이》의 체제와 내용은?

《말모이》 편찬자들은 서구 사전의 체제와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말 사전의 체제를 어떻게 세우고 내용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였다. 남아 있는 《말모이》의 원고는 240자 원고지로 231장,³⁾ 표제어는 1,400여 개에 불과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근거로 《말모이》의 체제와 내용을 가늠하는 일은 《말모이》의 국어사전사적 위상과 《말모이》가 현재의 우리말 문화에 끼친 영향을 확인하는 일일 것이다.

사전학에서는 표제어, 발음,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 어휘 정보를 포함하는 사전의 형식적 구조를 통해 사전의 체제와 내용상 특징을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 방식에 따라 《말모이》의 구조를 살펴보면 말모이의 체제와 내용상 특징을 정리하면서 《말모이》가 현대 국어 사전에 끼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범례인 ‘알기’(2쪽), 본문 ‘-갈죽’(153쪽), 색인 ‘찾기’(50쪽), 한자어 자획 색인인 ‘자획찾기’(26쪽)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표제어의 선정과 배열 방식을 보자. <말모이>의 범례에 해당하는 ‘알기’에는 낱말의 배열을 ‘가나……하’의 자리대로 한다는 설명이 있는데, 이는 자모순으로 낱말을 배열했음을 뜻한다. 이때 자모순 배열이라는 점은 현대 국어사전과 동일하지만, ‘ㄱ’과 ‘ㄲ’을 별도로 구분하는 현재의 방식과 달리 ‘ㄱ’과 ‘ㄲ’을 뒤섞어 배열하고 있다. 모음자를 어울려 쓴 ‘과, 깨, 귀, 꺾’를 ‘고’나 ‘구’의 순서에 배열하지 않고 뒤에 따로 제시하는 것도 현대 사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가분, 가뿐, 가분성, 가분수, 까불, 까불어지, 까뽀질, 가분……
 가호, 가후, 가훈, 가화 …
 강국, 강굴, 강귀, 깡그리, 강괴, 강권 …

또한 현대 사전처럼 어깨번호를 따로 붙이지 않지만, 형태가 같고 뜻이 다른 동형이의어(동음이의어)를 별도의 자리를 두어 배열하고 있다. 단, 일부는 별도의 자리를 두어 배열해야 할 것을 하나의 표제어 아래 묶어 기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단어의 의미적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현재와 달랐음을 보여 준다.

감치(밖) 옷의 가를 피어매는 바느질.(언) 무엇을 먹은 뒤 맛이 당기는 것.(-르맛).

표제어 선정과 관련해서는 ‘알기’에 특별한 선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전문어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수록하고 있다는 점과 표준적인 단어와 더불어 다양한 이형어(異形語)들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기’에 나와 있는 전문어 분류는 19분야로 ‘대종교, 불교, 예수교, 철학, 심리학, 윤리학, 논리학, 교육학, 경제학, 법학, 수학, 천문학, 지질학, 생리학,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물리학, 화학’ 등이다. 사전의 규모에 비해 전문어를 다양하게 수록하고 그 뜻풀이를 자세하게 한 것에서, 《말모이》가 당시 언어의 사용 양상을 보이는 사전(辭典)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식 전반을 보여 주는 사전(事典)으로서 역할을 겸하기 위해 편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말모이》 편찬자들이 생각하는 표준적인 단어에 대한 인식은 현재의 표준어처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알기’에 “뜻 같은 말의 몸이 여럿이 될 때에는 그 소리대로 딴 자리를 두되 그 가운데 가장 흔히 쓰이고 소리 좋은 말 밑에 풀이를 적음”이라 하여 여러 이형어 중 표준적인 단어의 선정 원칙을 밝히고 있다. ‘가을’에는 뜻풀이가 없이 같은 뜻의 말인 ‘갈’에 뜻풀이를 하거나, ‘가야금’에 뜻풀이가 없이 같은 뜻의 말인 ‘가야고’에 뜻풀이를 하는 식이다. 《말모이》 편찬자들은 ‘갈’과 ‘가야고’를 듣기 좋은 말 곧 표준어로 판단했던 것이다.

표제어의 선정 및 배열과 같은 거시적 구조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이 표제어의 표기, 발음,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 어휘 정보 등과 같은 미시적 구조이다. 이 부분의 기술 내용을 통해 당대의 서사 관습상 특징이나 편찬자의 독특한 문법관을 엿볼 수 있다.

가장 독특한 것은 표제어의 수록 형태이다. 용언 표제어의 경우 어미 ‘-다’를 붙인 형태가 아니라 그 어간만을 보이고 있다. 표제어로 ‘가다’와 ‘가르치다’가 아닌 ‘가’와 ‘가르치’를 보이는 것인데, 이는 어미를 독립 단어로 보는 주시경의 문법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한자음을 수용하면서 국어의 음운법칙을 적용하지 않거나(가명지학 家庭之學, 가데 家弟), 고유어 표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아래아(·)’를 사용해

한자어 표제어(간택 揀擇, 갈식 褐色)를 기록하고 있다.

표제어에 덧붙는 표시도 독특하다. 첫째, 말소리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기 위해 해당 음절 위에 ‘·’ (높음), ‘..’ (낮음)을 얹었다. ‘옷을 갈아입다’의 ‘갈’에는 ‘·’, ‘눈을 갈다’의 ‘갈’에는 ‘..’를 얹어 높고 낮음을 표시하고, ‘칼을 갈다’의 ‘갈’에는 높지도 낮지도 않다는 뜻으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음의 길고 짧음이 아닌 음의 높낮이가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국어사적 사실에 비춰 보면 타당성이 떨어진다. 둘째, 표제어가 복합어인 경우, ‘가-잠-나룻’, ‘가재-거름’, ‘갈바-대’ 등처럼 구성 성분 사이에 ‘-’를 넣어 구분하고 있다. 이는 형태 분석이 정교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인데, 《말모이》 원고가 보완 중인 관계로 이러한 구분이 일관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 셋째, 원어의 특성에 따라 표제어의 표시를 달리하였는데, 한자어와 외래어 표제어 앞에 ‘+’와 ‘×’를 붙여, +강산[江山], ×가스[gas]처럼 표시하였다.

《말모이》에서는 22개의 문법 범주로 품사, 어미, 접사 등을 분류하여 보여 주었다.⁴⁾ 독특하면서 복잡한 이 문법 범주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엄밀한 분류를 통해 표제어의 문법적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면 《말모이》 편찬자들은 왜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낯선 말을 만들어 사용했을까? 이는 관습보다는 엄밀성과 체계성을 중시하는 태도 때문이다. 주시경은 《국어문법》(1910)에서 문법 용어를 새로 만드는 이유를 “당시 일본

4) ‘계, 녀, 억, 언, 드, 안, 밖, 엇, 입, 읍, 업, 심, 맺, 뚝, 갈, 손, 김, 잇, 둘, 때, 높, 솔’ 등이 그것이다. 이 용어와 분류체계는 그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을 주시경의 것과 차이가 있지만, 주시경의 《말의 소리》(1914)에 제시된 문법 범주의 체계에서 변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변용의 이유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병문(2013)을 참조하라.

과 중국에서 한자로 문법 용어를 만들어 썼지만, 이 용어를 우리말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부족하거나 부적합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아예 우리말로 새로 만들어 엄밀하게 정의하여 사용했다.”와 같이 밝힌 바 있는데, 《말모이》에서 사용한 문법 용어의 독특함도 과학적 엄밀함을 중시했던 주시경의 문법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뜻풀이의 내용이나 방식에서도 당시 사전 편찬의 관점이나 서사 관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상어보다 전문어의 풀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풀이 글에서는 국한 혼용을 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가독상속인 [家督相續人] (제) [法]家督을 繼承하는 人이니 被相續人의 家族된 直系卑屬에 對하여 相續人되는 것은 寸數가 다른 사이에는 加減은 者를 하고 寸數가 같은 사이에는 男을 하고 寸數가 같은 男 又は 女 사이에는 嫡子로 하고 ... (하략) ...

강스 [講師] (제) 學術을 講義하는 스승.

사전의 뜻풀이에서는 표제어의 사용 맥락에 따른 다의적 의미를 기록할 필요가 있는데, 《말모이》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뜻풀이를 하고 있다.

깜백 (역) ㉠ 눈을 뜨었다가 감았다가 하는 것. ㉡ 불이 죽으라고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는 것.

또한 뜻풀이와 함께 용례를 보임으로써 표제어에 대한 이해를 높인 점도 눈에 띈다. 더구나 그 용례가 단어, 구, 문장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데에서 《말모이》 편찬자들이 체계적인 기술을 하기 위해 고민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갈 (밭) 박굶(옷을 —아 입).

갈 (제) 넓이.(— 넓은 큰 갈).

깜깜 (억) ㉠ 빛이 없는 것(그믐밤이 —) ㉡ 아주 모르는 것(글이 —)

가락 (넋) 갈죽하게 만들어 놓은 작은 문의 썸 이름(술 —. 옛 —).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음운 변동과 관련한 발음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점, 용언의 활용 정보나 문형 정보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표제어의 품사에 따라 뜻풀이를 달리하지 않은 점, 관련어 정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서 초기 사전으로서 《말모이》의 미숙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첫 시도였음에도 현대 사전의 체제와 내용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며 우리말 사전 기술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말모이》와 같은 시기에 편찬한 조선총독부 《조선어사전》이 애초에 조선어 주석을 갖추고 있었고 규모 면에서 방대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선어사전》이 우리말 사전의 편찬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어사전》 원고본에 나타난 조선어 풀이를 자연스러운 조선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말모이》 원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뜻풀이의 정밀함이 《조선어사전》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평가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말모이》

가(심) 어느 입을 다만임이 되게 하는 홀소리 밑에 쓰는 토(배— ㅌ).

《조선어사전》

가 『助』 終聲을 不附한 名詞를 主格으로 하여 表할 時에 用하는 語. (例) “새가 난다” “비가 온다”

《말모이》

가락지 (제) 손가락에 끼는 노르개.

《조선어사전》

가락지 『名』 婦女手指에 貫抽하는 雙環의 稱.(金銀珠玉類로 彫飾한 者).(指環)

《말모이》

가르치 (밖) 모르는 것을 알게 하여 줌. 또 「가라치」
가르치 (밖) ㉠ 손으로 어느 쪽을 안하아 이끌이는 일. ㉡ 무엇을 들어 말함 (누구를 —어 말이나?).

《조선어사전》

가르치다(가르쳐/가르친) 『活』 (一) 敎訓의 稱. (二) 指示의 稱.

《조선어사전》의 뜻풀이가 일본어로 되어 있고, 그 원고에 남은 조선어 뜻풀이가 자연스러운 조선어 표현이 아닌 이두식 표현이라면, 《조선어사전》의 편찬이 우리말 사전사에 끼친 영향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말모이》의 경우 이두식 표현이 가끔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전문용어에 대한 뜻풀이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지, 고유어의 뜻풀이나 일상용어의 뜻풀이에서는 이두식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조선어사전》(원고)과 《말모이》의 조선어 뜻풀이를 비교해 보면 《말모이》가 우리말로 우리말을 풀이하는 원형을 보여 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4. 어문 운동 역사에서 《말모이》의 의의는?

비록 출간되지 못한 원고본이지만 《말모이》는 우리말을 우리말로 풀이한 사전으로는 최초로 편찬된 것이기에 그 역사적 의의는 자못 크다. 또한 《말모이》가 근대 사전의 체제에 맞춰 편찬되었고 그 기술 내용 또한 정교하고 체계적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말모이》의 의의를 체계를 갖춘 최초의 우리말 사전으로 국한할 수는 없다.

《말모이》의 편찬자였던 김두봉, 권덕규 등은 1929년 결성된 조선어사전편찬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조선어사전편찬회 역시 스스로 《말모이》 편찬의 유산을 이어받았음을 천명하였다. 조선어사전편찬회에서 편찬한 사전이 1957년 최초의 대사전이자 현대 국어사전의 젖줄인 《큰사전》으로 출간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말모이》 편찬의 경험은 현대 국어사전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지만 《말모이》 편찬을 시작한 때에 조선총독부 역시 《조선어사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말모이》의 의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조선총독부가 교육용 조선어사

전으로 기획하여 편찬을 주관하였음에도 주시경이 별도의 조선어사전을 기획했다는 점, 1912년 조선총독부가 ‘보통학교용 조선어철자법’이란 이름으로 공포한 철자법을 따르지 않고 국문연구소에서 논의했던 주시경의 형태주의 철자법을 채택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결국 《말모이》에서 채택한 형태주의 철자법은 ‘한글마춤법통일안’(1933)으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고, 독자적 기준에 의해 대표 표제어를 선정한 《말모이》의 편찬 정신은 조선어학회가 ‘표준어사정안’(1936)을 제정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는 당시 민족어 운동 세력이 조선총독부 주도의 조선어 정책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아닌 민족어 운동 세력이 조선 어문 정리를 주도해야 함을 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

《말모이》 편찬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인 김두봉의 다음 언급을 통해 조선총독부 어문 정리 사업에 대한 당시 민족어 운동 세력의 생각을 가늠할 수 있다.

《김덕조선말본》(1922)의 붙임 ‘표준말’의 일부

우리는 아직 말모이(사전)도 하나 되지 못하(한불사전이나 한영사전이나 조선어사전 따위는 표준 잡을 만한 말모이로 볼 수 없음)여 표준말 한 마디도 잡히지 못한 이때에 어느 곳에서 채찍 맞고 뛰는 셈으로 서양말을 한문으로 옮겨 온 그것을 생판 서투르게 우리 사람에게는 냄새도 맞지 않게 그대로 음만 따서 표준말을 정하는 것이야 어찌될 일리오.⁵⁾

5) 밑줄은 필자의 것. 인용은 현대어로 고쳐 썼다.

김두봉은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편찬된 《조선어사전》을 표준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혹평하면서 이를 《한불자전》이나 《한영자전》과 같은 차원으로 보았다. 주시경을 비롯한 《말모이》 편찬자들의 생각 또한 이와 같았을 것이다. 《말모이》와 《조선어사전》 원고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상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말모이》

가늘 (엷) ㉠ 가름한 것의 몸피가 작음. ㉡ 일이 작음. ㉢ 사람의 것이 작음.

《조선어사전》

가느다(가느러/가는) 『活』 纖細한 稱.

가늘다(가늘어/가는) 『活』 ‘가느다’와 同.

《말모이》

가야금(伽倻琴) (제) 「가야고」에 보임.

《조선어사전》

伽倻琴(가야금) 『名』 樂器의 一種(伽倻國 嘉賓王이 樂師 于勒을 命하야 始造한 十二絃琴).

《말모이》

개미 (제) 땅 속에나 썩은 나무 속에 집짓고 모아 살는 버레니 …….
또 「개아미」

가얌이 (제) 「개미」에 보임.

《조선어사전》

가야미 『名』 「動」 膜翅類에 屬한 昆蟲이니…….

개미 『名』 「動」 ‘가야미’의 略稱.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에서는 《말모이》에서 인정하지 않는 ‘가느다’를 대표 표제어로 수록했으며, 《말모이》에서 표준형으로 보는 ‘가야고’와 ‘개미’ 대신 ‘가야곰’과 ‘가야미’를 대표 표제어로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두 사전에서 제시하는 단어의 표준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두봉이 《조선어사전》을 표준으로 삼을 만한 사전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사실 또한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두봉은 《조선어사전》이 당시 언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비판한 적은 없었다. 사실 언어 현실이 법칙에 어긋나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김두봉에게 어떤 것이 언어 현실에 가까운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민족이 주도하여 합리적인 표준어를 정하고 이에 따라 표준이 될 만한 사전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을 것이다. 우리말이기에 우리말의 법칙과 속사정을 잘 아는 우리가 우리말 정리를 주도하자는 것, 이것은 《말모이》를 편찬할 당시 편찬자들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참고문헌

- 김병문(2013), 주시경의 '씨난'과 《말모이》의 관계, 《한국사전학》 21호, 7~39쪽.
- 이병근(1977), 最初の國語辭典 《말모이》(稿本) 《알기》를 중심으로 《언어》 2-1, 67~84쪽.
- 김민수(1980), 《新國語學史》, 일조각.
- 김민수(1983), 말모이 편찬에 관하여, 《동양학》 13, 21~54쪽.
- 최경봉(2005),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 허재영(2009), 국어사전 편찬 연구사, 《한국사전학》 13호, 286~312쪽.
-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홍중선 외(2009), 《국어사전학개론》, 제이앤씨.